

한국 도시 남편이 지각한 부부권력 과정에 관한 연구 - 권력자원과 권력과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arital Power Processes Perceived by Korean Urban Husbands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강 사 : 李 貞 蓮

*Dept. of Home Management
Kyounghee University
Lecturer : Jung Yeon Lee*

목 차

I. 문제의 제기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II. 이론적 배경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1. 부부권력의 개념	IV. 연구결과 및 논의
2. 권력과정의 개념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3. 부부권력에 관한 이론	2. 연구문제 1의 검증
III. 연구 설계 및 방법	3. 연구문제 2의 검증
1. 연구문제 설정	V. 결론 및 제언
2. 조사도구의 구성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marital power processes perceived by Korean urban husbands. To do the task, this study examined the possibility of classifying the power processes and the effect of resources by using resource theory and normative resource theory.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

1) Power processes are classified into five factors, such as, 'induction', 'isolation', 'quarreling', 'carelessness' and 'withdrawal of love'. Induction, which makes control attempts by using verbal, indirect communication strategies, is proved to be the most factor.

2) Power resource variables are proved to be significant in their effects on the power processes. That is, objective resources are influencing on 'induction' and 'isolation' behavior and subjective variables are influencing on the other control attempts. Thus, it is found that including subjective variables as well as objective ones is very important. Above all,

that the concept of the centrality of patriarchy is supported to be an appropriate concept for the study on the marital power processes is a fruitful result in research.

But, the variances explained by resource variables are relatively small. It is suggested, therefore, further study should include more significant subjective resource variables.

I. 문제의 제기

가족은 가족원 개개인의 물리적·정신적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고, 세대를 거듭함에 따라 그들 고유의 가족 문화를 소유하여 가족규범, 역할, 권위구조, 대화형태, 가족원의 협동과정, 문제해결 방법 등의 여러가지 과업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자연스런 사회체계이다(유영주, 1984 : 15).

가족체계내에서 개인들은 분리된 실체가 아니고, 공동관계 속에서 상대적 지위를 점유하고 상호의존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가족행동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의 하나는 권력행동이라 할 수 있는 데, Olson과 Cromwell(1975 : 3)은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 중 가장 기본적인 면의 하나는 권력이라고 하였으며, Blood와 Wolfe(1960)도 가족구조중에서 가장 중요한 면은 가족원들의 권력 지위라고 하였고, 특히 Sprey(1975)는 권력은 결혼과 가족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주요한 개념이라고 하여 권력 개념은 상호의존적인 가족체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가족 권력은 다른 분야에 비해 연구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은 데, 그 이유로는 권력이라는 개념자체가 애정을 기반으로 한 공동 운명체인 가족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개인들도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권력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를 꺼리고 있다(Huston, 1983).

그러나 사회 현상을 보면 어떤 비영리적 집단에서도 권력구조는 존재하므로, 성과 연령을 주축으로 하는 가족 집단에 있어서도 일상적갈등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권력균형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서동인 외 역, 1988 : 176).

특히 현대가족은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취업의 증가로 과거의 전통적 권위구조에서 부부가 권력을 공유하는 동료적 관계로 점차 변화되어 나아가고 있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으므로 권력 균형을 위해 어떤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는 부부가 서로를 평등하게 대하고 존중하는 부부관계를 정착시키고 자녀들에게도 민주적 가정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게 하는데 매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존의 가족권력 연구들은 권력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타당한 척도 개발이 진전되지 않은 채 주로 가족권력 결과영역에 치중해 왔다. 국내 연구의 경우 대부분이 의사결정을 통하여 가족권력을 측정하였으며, 부부 권력의 역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미시적인 권력 과정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부부를 함께 조사한 연구가 약간 있으나(이영숙, 1985, 1986 : 이해경, 1986 : 이진숙, 1989) 주로 주부인 경우가 많아 남편이 지각한 부부권력관계에 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한국과 같이 가부장적 전통이 남아있는 사회에서는 부인의 태도보다는 남편의 태도가 부부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선행 요인이라고 생각되므로, 부부가 동등한 권력균형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편 집단의 경향을 파악하는 일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남편집단의 경향을 제시하는 것은 남편뿐 아니라 부인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부부권력의 역동적 과정에 대한 국내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부부 권력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한국 가족의 권력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소 안정되고 지속적인

부부관계는 규칙적이며 유형화될 수 있는 권력과정을 지닌다고 보고 권력과정의 실태를 파악하여 유형화하고 권력자원과의 관련성 정도를 제시하여 미시적인 부부권력과정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부권력의 개념

권력은 모든 관계에서 대인적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음에도(Olson & Cromwell, 1975; Scanzoni, 1979a; McDonald, 1980) 권력의 개념이 복합적이거나 애매모호하여 이론가와 임상치료자들간에 같은 현상의 다른 측면을 측정하거나, 또는 같은 현상을 각각 상이한 개념 혹은 상이한 이론적 관점을 사용하여 고찰해 왔다(Dunagan, 1987: 3).

현 시점에서 어느정도 여러 학자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부부 권력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 권력에서 볼 때 권력은 개인의 절대적 속성이 아니라 체계적 속성으로 본다는 점이다(Cromwell과 Olson, 1975; McDonald, 1980: 113).

Wolfe(1959)가 권력을 둘 이상의 가족원들의 "관계에 대한 능력"이라고 정의한 이래, 가족을 하나의 상호의존적인 체계로 보는 관점이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개인의 권력으로부터 관계상의 권력으로 분석의 초점이 옮겨졌다. Rodman(1972)은 부부권력을 한 개인의 속성이 아니라 남편과 부인의 권력 균형의 정도로 보았으며, Rollins와 Bahr(1976)도 권력을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성으로 보았다. Sprey(1975: 63-64)도 권력을 관계적 개념으로 보고 공동 행동 과정의 방향 또는 결과에 영향을 주는 능력으로 보았다.

둘째, 부부 권력은 다른 가족원의 행동을 통제하는 잠재적, 실제적 능력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다(Cromwell & Olson, 1975; Burr, Ahern & Knowles, 1977; Manz & Gioia, 1983; Rollins & Bahr, 1976). Cromwell과 Olson(1975: 7)은

권력의 다차원적인 속성을 제기하면서 잠재적 권력은 명확히 권력기반과 보다 관련이 있고, 실제적 권력은 개념상 권력과정과 권력결과에 보다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Szinovacz(1987: 652)는 권력을 잠재력 혹은 능력으로 보면서도 그 능력의 실제적 사용인 통제와는 구분된다고 하였다.

셋째, 부부 권력은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성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의도성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본다는 점이다(Lehmann, 1969; Minton, 1972; Wrong, 1979; Szinovacz, 1987).

가족 치료자들 중에서도 체계론적 입장에서는 권력의 개념을 임상치료에서 중요시하지 않으나 구조주의적입장과 여권론적 입장을 취하는 다른 치료자들은 권력의 의도성을 강조하며 목적적 과정에 주의를 기울인다(Cobb, 1988). 특히 권력의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들은 상대방에 영향을 주기 위해 행하는 긍정적 및 부정적 행동의 빈도 및 유형을 주로 관찰하고 있다.

이 밖에 부부 권력 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권력과 갈등간의 관계이다(McDonald, 1980: 113-114).

Rollins와 Bahr(1976)는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만 부부권력이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았다. Turk(1974), Szinovacz(1987) 그리고 Bahr(1989)도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Safilios-Rothschild(1976: 339)는 권력을 수행권력과 지휘권력으로 나누고 수행권력을 가진 자가 지휘권력을 가진 배우자에 의해 설정된 한계를 넘어 상황적인 배경을 수정하고 재규정하려고 시도할 때 갈등이 생긴다고 하여 이들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Scanzoni(1979b: 310)도 권력개념을 갈등 문제와 연관시키면서 행위자가 의도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권력을 행사할 때 타인이 응통성이 없고 비합리적인 요구를 나타냄으로써 공정성을 성취하려고 할 수 있으며 이 때 행위자가 저항을 하게 된다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Szinovacz(1987: 655)는 주어진 시점에서의 갈등상황을 권력연구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하였으며 갈등상황의 종류에 따라 권력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Jorgensen(1986 : 212)도 부부생활에서 가장 흔한 갈등은 경제적 관리에 관한 것이나 이것은 부부가 서로에 대해 주도권을 가지려는 데서 나오는 갈등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부부간의 모든 갈등의 기저에는 주도권 경쟁이 자리잡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권력과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권력행위가 표출되도록 동기화하여 가정내에서 경험되는 갈등상황을 선정한 후, 부부간의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Witteman과 Fitzpatrick(1986)은 두 개의 갈등상황을 선정하였는데, 부부가 공동시간을 갖는 문제와 새 친구를 그들의 관계에 끌어들이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Dunagan(1987)은 이와는 약간 달리, 부부간의 의견의 불일치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상황(context to change)과 의견이 일치하나 상대방을 강화시키려는 상황(context to reinforce)등, 두가지 맥락에서 권력 과정과 권력 결과를 각각 연구하였다.

그러나 McDonald(1980)과 김양희(1987)는 갈등이 권력 상황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새로운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은 주관적 지각(subjective perception)의 개념이다. 여러 연구들은 부부권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부의 지각이 실제 교환된 자원 못지 않게 의미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Beckman-Brindly, Tavormina, 1978 ; Osmond, 1978 ; Walster, Walster & Berscheid, 1978 ; Sexton & Perlman, 1989 : 933-934에서 재인용) 부부권력은 상호 작용은 사람들의 지각에 따라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는 견해(Rollins & Bahr, 1976)가 최근 연구에 나타나고 있다. Safilios-Rothschild(1970 : 544)도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이 "실재"라고 지각한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권력과정 연구에서도 행동자의 주관적 지각을 객관적 자원과 구분하여 강조할 필요성이 여러 학자에 의해 인식되어져 왔다(예를 들면, Blalock & Wilken, 1979 : 345 ; Guliver, 1979 ; Tedeschi, 1981 ; Szinovacz, 1987 : 665에서 재인용).

1985년 이후에는 이러한 관점이 더욱 지지를 얻어 관찰된 행동보다는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지각이 더욱 중요하다는 견해가 가족심리, 가족치료 분야에서까지 우세해지고 있다. 물론, 의사결정에 대한 자기보고식이 아닌 권력 과정에 대한 지각을 질문지로 보고하는 형식으로서, 이 것은 외적 자원을 중시했던 사회교환 이론과 외적 행동만을 판단의 준거로 삼는 행동주의적 관점을 모두 비판하는 것으로서, deTurck와 Miller(1986), Madden(1987)등이 이에 속한다.

이상으로 부부 권력 개념에 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갈등적 상황과 주관적 지각 개념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즉, 부부 권력은 부부체계의 속성으로서 주어진 시점의 특정 갈등상황에서 부부중 한사람이 의도된 결과를 성취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잠재적, 실제적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2. 권력과정의 개념

Cromwell과 Olson(1975)은 권력의 단일차원이 아닌 다차원적 영역임을 주장하고 권력기반(power bases), 권력과정(power processes), 권력결과(power outcomes)의 세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대부분의 연구가 이 중 권력 결과에 치중되어 있으나 1980년대 이후 권력과정 연구가 확산되고 있다.

권력과정은 가족내에서 어떻게 권력이 작용하는가를 나타내며 가족원들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권력과정은 일반적인 가족도의 의사결정, 문제해결, 갈등해결과 위기관리 동안에 발생하는 과정들을 포함한다(Olson과 Cromwell, 1975 : 6).

Olson과 Cromwell(1975 : 6)은 권력과정의 개념을 주장(assertiveness)과 통제(control)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주장은 타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의 수, 통제는 타인의 행동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효율적인 시도의 수를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Bahr(1989)는 행위자의 통제 시도와 이에 대한 상대방의 통제시도를 권력 과정으로 보고, 통제(control)를 권력 결과의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통제 시도를 다시 유도(induction),

상제(coercion) 조작(manipulation)으로 분류하고 이중 유도가 상대방의 저항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Falbo(1977)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견 대립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권력 전략을 조사한 후 이를 다시 두 개의 차원, 즉, 합리적-비합리적 전략과 직접적-간접적 전략으로 분류하였다. 합리적 전략은 절충, 논리적 진실, 양보, 설득, 전문성 등의 이성적 전략으로 구성되며, 비합리적 전략은 위협, 도피, 기만, 의사전달자의 감정변경 등 감정적인 전략들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간접적인 전략은 주장, 단순한 진술, 기정사실화등 개방적인 전략을 의미하며, 간접적 전략은 암시, 사교의 조작 등의 우회적인 전략들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 후, Falbo와 Peplau(1980)는 배우자간에 사용하는 권력 전략을 13개로 추출한 뒤 이를 다시 두 개의 차원으로 분류하였는데 즉, 직접적-간접적, 양방적-일방적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Szinovacz(1981)는 권력과정에 해당되는 권력을 통솔력이라 하고 이를 부부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영향력 또는 참여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즉 권력과정은 행위의 성공여부와는 관계없이 욕구충족을 위한 시도나 제안이 어느정도, 어떻게 행해 지는가의 측면이라 할 수 있다.

Dunagan(1987)은 권력과정을 영향력 시도 유형(style of influence attempts)으로 정의하고 다시 2개의 유형 즉, 언어적 유형과 행동적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행동에 소비된 시간의 비율을 측정하였다. 이밖에도 권력과정에 나타나는 전략으로 통제시도와 영향력(Straus와 Tallman, 1971), 영향력 시도(Bahr, 1972), 영향력 전략(Davis, 1975), 통제시도(Rollins & Bahr, 1976), 권력 전략(Falbo, 1977; Falbo & Peplau, 1980; Belk et al., 1980), 협상(Scanzoni & Polonko, 1980), 설득(Homans, 1974), 영향력(McDonald, 1977), 과정적 권력(Scanzoni & Szinovacz, 1980; Kingsbury & Scanzoni, 1989), 동맹 유형(Brown, 1988), 관리(Mayberry, 1988), 영향력시도 및 영향력 전략(Sexton & Perlman, 1989) 그리고 그 외 최종 의사결정을 수정 또는 지속시키는 직접적, 간접적인 행위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상으로 부부체계 내에서의 권력과정의 개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권력과정은 한 개인이 특정 갈등 상황에서 배우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로 행하는 통제시도행위를 의미한다.

3. 부부권력에 관한 이론

가족권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회 심리학, 가족 사회학, 아동발달, 그리고 가족치료 등에서 이루어져 학제적 연구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 사회 심리학 분야에서는 장이론과 교환 이론, 의사결정이론적 접근을, 가족 사회학 분야에서는 자원 이론과 이념적 이론(ideological theory) 그리고 규범적 자원이론을, 아동발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권력연구를, 그리고 가족치료 분야에서는 체계이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권력 중 특히 부부권력의 과정 연구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자원이론과 규범적 자원이론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원이론은 교환 이론을 부부권력 영역에 적용시킨 특별한 부분이며(Scanzoni, 1979b), 다음 세 가지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즉 첫째, 개인은 끊임없이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한다. 둘째, 대부분의 개인의 욕구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충족된다. 셋째,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개인의 욕구 충족 및 개인 혹은 집단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자원의 끊임없는 교환이 있게 된다(Wolfe, 1959 : 100; Cromwell & Olson, 1975 : 24에서 재인용)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욕구와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많은 자원을 가진 사람이 의사결정에서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진다고 본다. 여성의 권력도 남편의 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된다(Olson & Cromwell, 1975 : 25). Scanzoni(1982), Scanzoni와 Fox(1980)도 성과 성역할 행동은 부부간의 권력배분 결정에 주요한 변인임을 제시하고 부인이 직업적 지위와 경제적 자원을 성취하면

남편의 성역할 행동이 근대화되어 권력 배분이 보다 평등화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Sexton과 Perlman, 1989 : 934). 그러나 경제적 자원의 양만으로 권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며 권력관계를 정적으로 다룬 접근이라는 견해가 있다(Eichler, 1981 ; Johnson, 1975 ; Sprey, 1972 ; Szinovacz, 1987 : 664에서 재인용).

Olson과 Cromwell(1975 : 25)은 가족에 의해 가치있는 것으로 지각된 자원들, 그 자원들간의 가치순위, 자원의 근접성, 그리고 관계의 책임성(commitment) 수준 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Blood와 Wolfe는 소득과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적인 명성과 남편의 권력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하였으나, Berger(1980 : 210)의 연구는 “한 개인이 결혼에 제공하는 자원의 절대적인 수는 남편이나 부인의 권력을 결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적인 자원의 공헌이 권력을 결정한다”고 보고하고 앞으로의 권력 자원에는 개인 상호간의 숙련의 정도, 신체적인 매력, 유우머 감각과 같은 자원의 분석과 우월성과 같은 퍼스낼리티의 개념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제시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자원이론에서는 경제적 자원 뿐 아니라 비경제적 자원을 많이 소유할 수록 권력이 더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반면, 저개발국가의 가족 연구에서 권력의 결정요인으로서 규범적 요인이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연구들(Buric & Zecevic, 1967 ; Safilios-Rothschild, 1967 ; Cromwell, Corrales, Torsillo, 1973 ; Cooney, Rogler, Hurrell & Ortiz, 1982)이 발표되면서 자원이론만으로 권력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특히, Buric과 Zecevic(1967), Safilios-Rothschild(1967)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권력간에 부적인 상관을 보여 자원이론과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모순된 결과를 근거로 Rodman(1967, 1972)는 문화적 맥락에서의 자원이론을 제안하였는데 이 이론에 의하면, 권력에 대한 자원의 효과는 권력 분배에 대한 문화적 혹은 규범적 조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Rodman은

문화적 규범에 따라 가부장제 사회, 수정된 가부장제 사회, 과도기적 평등주의 사회, 평등주의 사회 등의 4가지 사회유형을 분류하고 각 하위문화에서의 자원과 권력분배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즉, 자원이 권력과 긍정적인 상관이 있는 경우는 비교적 평등한 규범을 지닌 사회이며,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부부의 자원 여부와 상관없이 남편지배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수정된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사회계층이 높은 집단의 남편이 교육의 영향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보다 권력을 양보하는 경향이 있음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그의 가설은 특히 수정된 가부장제 문화에 관한 연구들 - 예를 들면, 그리이스(Safilios-Rothschild, 1967, 1976), 유고슬라비아(Buric & Zecevic, 1967), 터어키(Fox, 1973), 한국(Kim & Kim, 1977), 그리고 일본(Blood, 1967) - 에 의해 지지된 바 있다(Warner와 그의 동료들, 1986 : 122).

따라서, 규범적 자원이론은 자원이론이 비교문화적 차원에서의 적용에 한계점이 있음을 보완해주는 보다 광범위한 가족권력의 분석틀로서 지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교적 전통이 잔존해 있는 한국 가족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문화적 규범을 관련시킨 연구가 미진하므로 부부의 사회경제적 자원과 함께 규범적 자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진숙, 1989 : 3). 이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김홍은, 1986 ; 이진숙, 1989)은 사회적인 규범이 개개인에게 내재화된 태도 차원을 중시하여 성역할 태도를 규범적 자원변수로 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경향은 다소 수정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980년대 들어서 성역할이론이 그 개념 자체가 문제시되고 있어 과연 가부장적 전통규범과 평등주의적 규범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성역할 태도 변인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성역할 태도는 부부간의 역할을 성에 의해 구분하는 전통적 태도와 성의 분화를 최소화시켜 역할의 융통성을 선호하는 근대적 태도로 분류하여 분석되어 왔는데(대한 가정학회 편, 1990 : 189) 이 구분은 역할수행의 차원을 다루는 것이므로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가족을 연구하는 데에는 가정내에서의 사회화(socialization)에 기반을 둔

성역할 이론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Ferree, 1990). Connell(1985)을 비롯한 여러 여권론자들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보다는 사회구조가 성(gender)의 계층화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 지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가정 생활이 사적이고 미시적인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사회구조 내에 존재하는 한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어느 사회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가부장제 사회로서 그 반대의 경우는 아직 인류사회에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할 때, 자원의 양이나 성역할태도의 변화만으로 권력평등을 예측할 수 없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가 가부장적 문화 규범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지 또는 탈피해 나가는 과도기적 과정에 있는지를 실제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역할 규범보다 더 근본적인 이념을 다룬 척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대안으로 가장의 중심성(centrality of the patriarchy)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였다. 이 개념은 가장이라는 지위에 중심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가정이 유지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정당화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구조상 성적 불평등이 보편화되어 있고, 가족이 외적 구조의 영향을 받아 부부의 권력구조가 남성위주로 유지되고 있음을 기본 전제로 받아들이면서, 가부장적 이념을 보다 더 근본적으로 반영한 내용 - 남편이 가장이 가족원의 삶의 주인이며, 가장의 이익이 다른 가족원의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아울러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면 가정의 안정을 위협하리라는 우려가 담긴 이데올로기를 측정하는 - 인 가장의 중심성에 대한 태도라는 개념이 규범적 자원 이론의 유용성을 증가시키는 변인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의 분석틀에 포함시켰다.

4. 선행 연구의 고찰

권력과정에 관한 연구는 數的으로 많지 않으며, 관련변인도 대체로 인구학적 변인이나 사회경제적 변인에 국한되어 있다. 이를 중심으로 연구경향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Falbo와 Peplau(1980)는 학생동거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권력과정시 사용하는 전략에 있어서 성차가 발견되었다. 즉,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상호작용을 많이 포함하고 자기주장을 직접 전달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많았다.

Belk와 그의 동료들(1980)은 권력과정에서의 성차와 문화의 차이를 발견하였는데, 여성은 중요성을 설명하여 동의를 얻어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남성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보다 많이 사용하며 미국인은 보다 직접적인 전략을 그리고 멕시코인은 긍정적인 감정을 사용하는 방법을 많이 취하는 경향을 보고하였다.

Kingsbury와 Scanzoni(1989)는 전문직 부부의 경우 권력과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역할불일치를 제시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성역할불일치가 클수록(다시 말하면, 남편이 더 근대적인 태도를 가질 수록) 남편이 권력과정에서 더 많은 권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Cheek(1987)의 논문에서는 부인의 직업적 지위는 부인의 권력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주나 남편의 직업적 지위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Sexton과 Perlman(1989)의 연구에서는 둘다 전문직인 부부와 남편만 전문직인 부부간에 권력과정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영향력 시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향력 전략 유형에서는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Dunagan(1987)은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이 부부의 언어적, 행동적 영향력 시도 유형에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부부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갈등 상황일 때, 남편의 소득이 낮을 수록 남편은 행동적 시도 유형에 소비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소득과 언어적 시도 유형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으로 권력과정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권력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선행 이론적 고찰에서 그 중요성을 시사받아 다음과 같은 변인들을 추출하였다. 즉, 권력자원을 객관적 자원과 주관적 자원

으로 분류하고 객관적 자원에는 결혼지속년수, 가족형태, 남편과 부인이 교육수준, 가정의 월수입, 남편의 직업, 부인의 취업유무 등의 7개 변인을, 주관적 자원중 개인적 자원에서는 부인의 경제적 기여도, 주관적 경제수준, 가장의 중심성에 대한 태도 등의 3개 변인을, 그리고 관계적 자원에는 남편과 부인의 심리적 의존도, 결혼 초기의 상대적 주도권 등의 3개 변인을 설정하여 모두 13개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채택하였다.

III. 연구설계 및 방법

1. 연구문제 설정

앞에서의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설정한 분석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 도시 가족의 권력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도표 1 참고).

〈연구문제 1〉 한국 도시가족의 남편은 특정 갈등 상황에서 부인이 어떠한 권력 과정유형을 취하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한국 도시가족의 남편이 지각한 부인의 권력 과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또한 권력자원 중 객관적 변인과 주관적 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는 각각 어떠한가?

2. 조사도구의 구성

1) 부인의 경제적 기여도

Lee와 Petersen(1983), Sexton과 Perlman(1989) 그리고 Warner와 그의 동료들(1986)의 척도를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부인이 가정의 경제 생활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단일 문항 11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범위는 0~100퍼센트이며 척도의 간격은 10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인의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주관적 경제 수준

객관적인 월수입의 양과는 별도로 현재 가정의 월수입이 어느정도라고 지각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단일 문항 11점 Likert 척도를 구성하였다. 범위는 0~10점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경제 수준이 매우 부유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심리적 의존도

남편과 부인이 서로에게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다고 남편이 지각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각각 단일 문항 11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범위는 0~100퍼센트이며, 척도의 간격은 10이다. 점수가 높을 수록 심리적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가장의 중심성에 대한 태도

가장의 중심성(centrality of the patriarchy)에 대한 태도 척도는 성역할 규범이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즉 가장은 반드시 남편이어야 하는가, 남편의 이익은 부인의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남편의 권위의 상실은 가정의 안정을 위협하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아 10개의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매우 찬성에 1점, 매우 반대에 5점을 주어 합산하여 총점수가 낮을 수록 남편에게 가장으로서의 중심성에 부여하는 전통적 태도를, 그리고 총점수가 높을 수록 남편과 부인에게 동등한 지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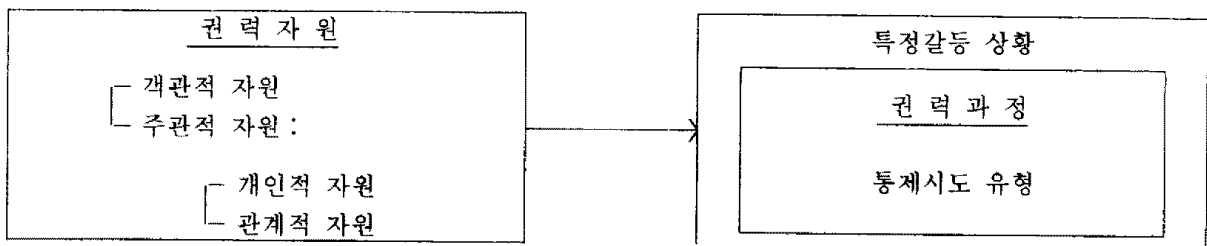


도표 1.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개념틀.

인정하는 근대적 태도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문항 번호 3, 4, 7, 10은 반대로 서술되었으므로 반대 점수를 주었다. 개념상 애매모호한 문항 5번을 제외하여 최종 분석에 채택된 문항은 총 9개이며, 신뢰도를 측정된 결과 Cronbach's alpha = .7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5) 통제 시도 유형 척도

Falbo(1980) 그리고 Dunagan(1987)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통제시도 유형을 측정하기로 하였다. 총 25개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어 측정된 후 요인 분석을 하여 최종 5개의 통제 시도 유형을 추출하였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모집단을 서울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결혼한 남성집단으로 설정하고 인구학적 변인인 연령, 직업, 학력의 분포가 가능한 한 고르게 되도록 의도적 표집을 하였다. 사무직과 자영직에 종사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무직에 종사하는 남성은 대기업체의 직원들에게 직접 응답하게 한 후 본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고, 자영직 집단의 남성은 숙명여자 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가정관리학과 학생 중 40명을 조사원으로 기용하여 자신의 거주지 근처의 상점을 찾아가 질문지를 응답하게 한 후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조사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을 균일하게 배정하였다. 무응답이 많은 경우나, 학력이 낮은 대상의 경우엔 면접법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모두 514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60세 이상의 남성의 경우 응답이 불충실하여 제외하였고 또한 자녀가 없는 경우 권력과정 척도에서 무응답이 많이 발생하여 분석자료에서 제외되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429부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는 권력과정 척도의 작성을 위하여 3차례의 예비조사가 실시되었는데, 1차 예비조사는 문항 작성을 목적으로 30여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주로 행하는 통제 시도 유형을 개방형 질문지를 통하여 10개 이상 응답하도록 한 후 그

중 빈도가 5개 이상인 문항을 30개 추려 내었다.

그 다음 2차 예비조사에서 50여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30개 문항을 4점 Likert척도로 재구성한 후 변별력이 1.0 이상인 문항 25개를 통제 시도 유형 척도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3차 예비조사를 남편 집단과 부인 집단 각각 100명 모두 200명에게 실시하여 독립변인과 권력과정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가장의 중심성에 대한 태도 척도의 분포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어 문항들을 수정하고 통제시도 유형 척도도 5점 Likert 척도로 바꾸어 본 연구에 임하게 되었다.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딩한 후 SPSS PC로 전산처리하였다.

우선,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분석하기 위해서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고, <연구문제 1>은 한국 도시 가족의 권력 과정 유형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주성분분석방법을 통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는 한국 도시 가족의 권력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검증하는 것으로서, 유의도와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투입 방식으로 중다 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또한 권력자원 변인 중 객관적 변인과 주관적 변인의 상대적 기여도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동시적 투입방식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부부의 연령은 각각 30대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결혼지속년수도 10년 이하가 55.0%, 10~19년이 32.4%, 가족생활주기도 1단계에서 3단계까지가 가장 많이 비교적 젊은 세대가 표집되었다. 자녀수는 2명 이하가 대부분이고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79.3%, 직계가족이 16.8%, 그외 4.0%로서, 대체로 부부와 자녀로만 구성된 핵가족 형태를 보였다.

한편,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남편과 부인 모두 고졸이 가장 많았고(45.9%, 41.7%), 그다음이 대졸이었다(40.6%, 32.6%). 부부의 직업을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사무직이 57.8%, 자영직이 42.23%이고 부인의 경우는 주부가 77.9%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직업이 있는 경우는 자영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전문직과 사무직이었다.

가정의 월수입에 있어서는 100~150만원인 집단이 37.6%로 가장 많고, 100만원 미만인 31.8%였으며, 150~200만원이 18.8%, 200만원 이상이 11.9%로 전반적으로 중간집단이 표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 문제 1의 검증

<연구문제 1>는 한국 도시 가족의 남편은 특정 갈등 상황에서 부인이 어떠한 권력 과정유형을 취하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부인이 행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위를 기술한 총 25개 문항의 통제시도 유형 척도를 구성한 후 PC(Principal Component)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아이겐 값이 1.0이상인 요인을 추출한 결과, 직각 회전(varimax rotation)을 실시한 후 모두 5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각 요인의 아이겐 값은 각각 5.55, 2.74, 1.89, 1.87, 1.05이었고 요인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로 측정된 결과 각각 .76, .77, .70, .71, .69로 나타났고, 이 요인들은 전체 분산의 56.4%를 설명하고 있어 본 연구의 권력과정 척도는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고). 본 연구에서는 요인 1을 '유도', 요인 2를 '고립화', 요인 3을 '언쟁', 요인 4를 '시중소홀', 그리고 요인 5를 '애정철회'로 각각 명명하였다.

이상의 요인들은 Falbo(1977), Falbo와 Peplau(1980), Dunagan(1987)의 분류를 참고로 의사소통의 차원에서 재분류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의 표출방법에 따라 언어적-비언어적 차원과 직접적-간접적 차원으로 요인들을 다음 도표 2와 같이 재구성하였다. 언어적-비언어적 차원은 통제의도를 언어로 표현하는가 아니면 행동이나 표

정으로 나타내는가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며, 직접적-간접적 차원은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는가 아니면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가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이러한 분류를 중심으로 각 유형을 정의한다면, '언쟁'은 상대방에게 직접 불만을 표출하고 논리적인 언어로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시도이며, '애정철회'는 상대방에게 언어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상대방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태도를 변화시키는 시도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 반면, '유도'는 통제의도를 언어로 표현하면서 유우머, 암시등의 방법을 씀으로써 간접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이고, '시중소홀'은 불만의 원인을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저항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고립화'는 '언쟁'과 '애정철회'의 중간형태로서 불평을 언어로 표현하면서 심리적, 공간적으로 상대방을 고립시키는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도'행동이 제 1의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 연구를 참고로 살펴보면 바람직한 통제전략이라고 판단된다. Falbo(1977)에 의하면 유도나 설득은 합리적이며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전략으로 분류되었고, Bahr(1989)도 역시 여러 통제시도 유형 중 유도 행동이 상대방의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부인들이 남편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비언어적이거나 직접적인 통제유형보다는 언어적으로 명확히 통제의도를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의 태도를 변화시키도록 우회적인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권력균형을 위한 바람직한 경향이라고 사료된다.

3. 연구문제 2의 검증

<연구문제 2>는 한국 도시 가족에서 남편이 지각한 부인의 권력과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고 권력자원 중 객관적 자원과 주관적 자원의 상대적 기여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통제시도 유형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단계적 투입방

표 1. 남편이 지각한 부인의 통제 시도 유형에 대한 요인분석

분항번호	변인	유도	고립화	연쟁	시중소홀	애정철화	h ²
	그런태도를 갖지 않게 유우머를 섞어 말한다.	.74	.05	-.02	-.00	-.17	.58
	미안한 마음을 갖도록 더 친절하게 대한다.	.71	-.01	-.08	-.21	-.19	.60
	나의 태도가 바뀌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한다.	.69	-.08	.09	.13	.14	.52
	아내가 자신의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한다.	.67	.29	-.05	-.03	-.09	.54
	분위기를 바꿔서 설득한다.	.63	-.10	.02	-.09	.28	.50
	아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한다.	.54	-.33	.06	-.16	.12	.43
	자녀들에게 하소연한다.	.04	.74	-.10	.02	.25	.62
	자녀들과 가까이 지내고 나를 상대하지 않는다.	-.09	.67	-.02	.38	.16	.64
	나에게 들리도록 다른 방에서 불평한다.	-.07	.66	.21	-.07	.12	.51
	나의 말을 가로막고 중단시킨다.	-.19	.51	.45	-.06	.22	.55
	다른집에 비해 너무 심하게 대한다고 말한다.	-.27	.50	.34	.19	-.23	.53
	아내도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20	.46	.44	.05	.29	.53
	근본 이유를 캐묻고 잔소리를 한다.	.10	.19	.70	.21	.10	.59
	다시 또 그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말한다.	.00	.19	.68	.12	.11	.53
	나에 대한 불만을 즉시 말한다.	.11	-.19	.62	.26	-.14	.52
	아내도 나의 행동에 대해 비판한다.	.02	.01	.60	.23	.34	.53
	나에게 통명스럽게 대한다.	-.17	-.06	.24	.75	.15	.68
	나에 대한 시중을 소홀히 한다.	-.10	.07	.25	.71	-.03	.61
	매우 서운한 표정을 짓는다.	-.26	.22	.22	.64	.19	.59
	용서를 빌 때까지 화해하지 않는다.	-.16	.28	.27	-.02	.65	.60
	대화를 하지않고 나를 외면한다.	-.08	.24	.06	.43	.58	.59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	-.02	.48	.12	.21	.51	.62
	pct of variance	25.2	12.5	8.6	5.4	4.8	56.4
	아이겐 값	5.55	2.74	1.89	1.87	1.05	

* 각 요인별 신뢰도를 감소시키는 문항 5, 9, 19는 최종 분석시 제외되었음.

식으로 실시한 결과 다음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도' 행동에 영향력 있는 변인은 모두 4개 변인으로 나타나, 결혼지속년수가 적을수록($\beta = -.125$),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beta = .125$) 남편이 가장의 중심성에 대하여 근대적인 태도를 가질수록($\beta = .108$), 남편의 심리적 의존도가 높을수록($\beta = .101$), 부인이 간접적인 유도 행동을 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남편이 지각하였으며, 이 중 결혼지속년수가 제 1의 영향력있는 변인으로 밝혀졌고, 이상 4개 변인의 설명력은 약 8.46%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립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3개 변인으로서 모두 否的인 관련성을 보였다. 부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beta = -.182$), 남편의

도표 2. 통제시도 유형의 차원

	언어적	비언어적
직접적	연쟁	애정철화
간접적	유도	시중소홀

심리적 의존도가 낮을수록($\beta = -.143$), 가정의 월수입이 적을수록($\beta = -.097$) 부인이 통제 시도 전략으로서 고립화의 행동을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남편이 지각하였으며, 이 중, 부인의 교육수준이 가장 영향력있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이상 3개 변인의 설명력은 약 8.66%로 나타났다.

또한 '연쟁' 행동과 관련있는 변인은 3개 변인으로서, 결혼 초기에 부인의 주도권이 상대적으로 많을수록($\beta = .212$), 결혼지속년수가 적을 수록

($\beta = -.124$), 가족형태가 비핵가족인 집단보다 핵가족인 집단의 경우($\beta = .110$) 부인이 직접적이고 언어적인 언쟁을 통하여 통제시도를 하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남편이 지각하였다. 이중 결혼초기의 상대적 주도권이 제 1의 영향력있는 변인으로 밝혀졌으며, 이상 3개 변인의 설명력은 약 8.15%로 나타났다.

한편, '시중소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은 모두 3개 변인으로서,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beta = .153$), 부인의 경제적 기여도가 낮을수록($\beta = -.141$), 결혼초기에 부인의 주도권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록($\beta = .116$) 부인이 시중소홀이라는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남편이 지각하였다. 이 중 남편의 교육수준이 가장 영향력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상 3개 변인의 설명력은 약 5.16%이었다.

마지막으로, '애정철회' 행동과 관련있는 유의한 변인은 남편의 심리적 의존도와 남편의 직업으로 나타났는데 모두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즉, 남편의 심리적 의존도가 낮을수록($\beta = -.159$), 그리고 남편의 직업이 사무직에 비해 자영적인 경우($\beta = -.120$) 통제 시도 방법으로서 부인이 애정철회 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중 남편의 심리적 의존도가 제 1의 변인으로 나타났고, 이 두 변인의 설명력은 약 4.87%였다.

다음으로 각 통제 시도 유형에 관련된 권력자원 변인의 기여도를 알아보려 한다. 본 연구는 개념틀에서 권력자원을 크게 객관적 자원과 주관적 자원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 중 어떤 자원이 권력과정에 더 기여하는 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동시투입방식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표 2의 회귀식(2)와 회귀식(3)에서 결정계수 R^2 을 근거로 분석하면, '유도'와 '고립화' 유형엔 객관적 자원 변인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언쟁', '시중소홀', '애정철회' 유형엔 주관적 변인의 기여도가 약간 높았다. 따라서, 권력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객관적 변인과 주관적 변인은 각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 대하여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수준은 5개 통제 시도 유형 중 3개 유형에서 유의한 변인으로 밝혀져,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도' 행동이 증가하고 '고립화' 행동은 감소하며 또한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중소홀' 행동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남편의 권력과정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변인으로 판단된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부부의 권력과정에 관련이 없다는 연구(Dunagan, 1987)와 유의한 관련성을 제시하는 연구(Check, 1987)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권력과정의 개념 및 측정이 서로 상이한 데 원인이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객관적 자원 변인 중 결혼지속년수, 가족형태, 가정의 월수입, 남편 또는 부인의 교육수준, 그리고 남편의 직업 등 5개 변인은 적어도 한개 이상의 권력과정 유형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밝혀진 반면, 부인의 취업 유무 변인은 그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는 여성들이 사회적 노동에 참가함으로써 종속적 위치를 탈피할 수 있는 점에서 하나의 진보로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이러한 증가현상이 곧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위치개선, 또는 가정내에서의 평등한 위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분석(Barkun, 1991)과 일치하는 것으로 부부간의 권력과정이 부인의 취업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요인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결과는 Bernard(1976), Stamp(1985)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그들에 의하면, 취업으로 인해 여성의 자원이 증가해도 남성위주의 문화적 규범때문에 여성들은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는 권력협상을 회피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한국 도시 남편의 경우, 부인의 취업유무는 권력과정에 독자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없고 그 보다는 사회구조 내 잔존해 있는 전통적인 규범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가정의 중심성에 대한 태도 변인은 5개

통제시도 유형 중 '유도' 행동에서 유의한 변인으로 밝혀져 남편이 가장의 중심성에 대하여 근대적인 태도를 가질 수록 유도행동이 증가하는 반면 다른 통제 시도 유형과는 별다른 유의성이 발견

되지 않았다. 이 결과에 따르면 규범적 자원이론은 권력과정을 설명하는 데 부분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네째, 심리적 의존도 변인은 5개 통제시도 유형

표 2. 남편이 지각한 부인의 권력과정에 대한 회귀분석^{주 1)}

(N = 429)

통제시도 유형	독립변인	회귀식(1)		회귀식(2)		회귀식(3)	
		B	Beta	B	Beta	B	Beta
유도	결혼지속년수	-.073	(-.125)*	-.081	(-.139)*	.	
	부인의 교육수준	.184	(.125)*	.211	(.143)*	.	
	가장 중심성에 대한 태도	.084	(.108)*	.		.090	(.115)*
	남편의 심리적 의존도	.022	(.101)*	.		.033	(.152)*
	상수	11.948					
		R ² = .0846		R ² = .0625		R ² = .0384	
고립화	부인의 교육수준	-.282	(-.182)***	-.334	(-.215)***	.	
	남편의 심리적 의존도	-.033	(-.143)**	.		-.047	(-.180)***
	가정의 월수입	-.009	(-.097)*	-.009	(-.102)*	.	
	상수	20.502					
			R ² = .0866		R ² = .0674		R ² = .0325
인쟁	결혼초기의 주도권	.944	(.212)***	.		1.039	(.234)***
	결혼지속년수	-.059	(-.124)**	-.071	(-.148)**	.	
	가족형태	.920	(.110)*	1.038	(.124)*	.	
	가족형태	9.347					
	상수	9.347					
		R ² = .0815		R ² = .0372		R ² = .0546	
시중소홀	남편의 교육수준	.191	(.153)**	.189	(.152)**	.	
	부인의 경제적 기여도	-.016	(-.141)**	.		-.015	(-.131)**
	결혼초기의 주도권	.425	(.116)*	.		.470	(.129)**
	상수	6.573					
		R ² = .0516		R ² = .0232		R ² = .0284	
애정철회	남편의 심리적 의존도	-.023	(-.159)**	.		-.027	(-.187)***
	남편의 직업	-.663	(-.120)*	-.871	(-.157)**	.	
	상수	9.019					
		R ² = .0487		R ² = .0248		R ² = .0351	

* p<.05 ** p<.01 *** p<.001

주 1) 독립변인 중 부인의 취업유무, 남편의 직업, 가족형태 등 세 변인은 가변인으로 처리되었다. D1 = 부인의 취업유무(직업이 있는 경우 : 1, 주부인 경우 : 0), D2 = 남편의 직업(사무직 : 1, 자영업 : 0), D3 = 가족형태(핵가족 : 1, 직계가족 및 기타 : 0).

회귀식(1)은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이고, 회귀식(2)는 관련변인 중 객관적 자원변인만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이며, 회귀식(3)은 관련변인 중 주관적 자원 변인만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이다 (홍두승, 1987 : 235-236) 참고).

회귀가정의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잔차분석을 한 결과 회귀가정을 만족시키고 있었으며 Durbin-Watson계수도 각각 1.84, 1.80, 1.87, 1.86, 1.89로 2에 가까워 잔차간에 자기 상관이 없었다 (조복희, 1991 : 22 참고).

중 '유도', '고립화', '애정철회' 등의 3개 유형에서 유의한 변인으로 밝혀져 관계적 차원의 변인이 남편의 권력과정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권력자원 변인이 통제시도 유형을 설명하는 정도는 전반적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편으로서, 그 중 '유도', '고립화', '언쟁' 유형의 설명력은 8% 이상이고, 나머지 2개 유형의 설명력은 5%를 상회하는 정도로 나타났다. 객관적 자원 변인과 주관적 자원 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는 각각 인정되었으나, 전체적인 설명력이 낮은 것은 권력자원과 권력과정간의 관련성이 적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관찰법으로 조사한 연구(Cheek, 1987; Sexton & Perlman, 1989)와 자기보고법을 사용한 연구(Dunagan, 1987)에서도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행하는 의사소통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미시적인 주관적 자원 변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도시 가족에서 남편이 지각하는 권력과정 및 권력과정에 대한 권력자원의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는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도시 가족의 남편이 지각한 부인의 통제시도 유형은 '유도', '고립화', '언쟁', '시중소홀', '애정철회' 등의 5개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개념상, 언어적-비언어적, 그리고 직접적-간접적 의사소통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남편은 부인이 유도라는 통제시도 유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간접적이면서도 언어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권력과정 전략으로 가장 많이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 도시 가족의 남편이 지각하는 부인의 권력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객관적 자원과 주관적 자원이 각각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

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유도', '고립화' 유형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변인은 객관적 자원이었고, '언쟁', '시중소홀', '애정철회' 유형의 경우에는 객관적 변인이었다. 객관적 자원에 치중한 과거의 연구경향과는 달리 객관적 자원과 병행하여 주관적 자원을 다루는 것이 미시적인 부부권력연구에서 필요함을 입증해준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주관적 자원을 개인적 자원과 관계적 자원으로 구성한 점도 비교적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부권력에 관한 국내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지각한 권력과정을 유형화하고 권력자원의 설명력을 측정하여 부부간의 권력균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부부권력에 관한 이론적 개념들의 정립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처음 시도한 가장의 중심성에 대한 태도 변인이 권력과정에 유의한 변인으로 밝혀진 것은 가족권력에 작용하는 문화적 규범요소로서 가장의 중심성에 대한 태도가 적합한 개념임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권력자원 변인에 의한 권력과정의 설명력이 높지 않은 점, 권력과정에 대해 부인의 취업유무 변인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이 본 연구결과 상의 제한점으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부부권력의 역동성을 자세히 규명하는 보다 타당한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이 필요하다고 전망된다.

즉, 주관적 지각의 관점을 수용하여 부부의 태도 및 행동을 각각 측정해야 하며 부인을 조사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부권력의 역동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미시적인 접근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부부체계에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진단이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부간에 바람직한 권력균형을 이루고 보다 효율적인 통제시도 기술을 행할 수 있도록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는 부부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1) 김양희(1987). 가족갈등에 관한 이론적 접근. 가정문화 논총. Vol. 1. 중앙대학교.
- 2) 김홍은(1986). 부부의 자원과 부부 권력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3) 박충선(1991). 맞벌이 가족의 출현배경. 서울특별시 한국가족학 연구회. 가정복지세미나 현대사회와 가족문제.
- 4) 서동인·원효중·노영주(역)(1988). 가족관계와 의사소통 : 응집성과 변화. 서울 : 까치.
- 5) 유영주(1984). 신가족관계학. 교문사.
- 6) 이영숙(1985). 부부간의 권력 관계와 사랑. 논문집 제 11집, (군산대학).
- 7) 이영숙(1986). 한국 도시 가족 부부간의 지위관계와 부인 학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8) 이진숙(1989). 남편과 부인이 지각한 부부의 상대적 권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이해경(1986). 부부권력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0) 조복희(1991). 가정학 연구 방법론. 교문사.
- 11) 최규련(1991). 맞벌이 가족의 부부문제. 서울특별시 한국가족학 연구회. 가정복지세미나 현대사회와 가족문제.
- 12) 한남제(1971). 한국 도시가족의 권위관계 - 미국 도시가족과의 비교연구 -. 한국사회학 제 6집, 55-67.
- 13) Bahr, S.J.(1972). Comment on "The study of family power structure : a review 1960-1969.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4, 239-243.
- 14) Beckman-Brindley, S. & Tavormina, J.B.(1978). Power relationships in families : a social exchange perspective. *Family Process* 17, 423-436.
- 15) Belk, S.S., Snell, Jr., W.E., Garcia-Falconi, R., Hernandez-Sanchez, J.E., Hargrove, L. & Berger, C.R. (1980). Power and the family. In M.E. Roloff & G.R. Miller(Eds.). *Persuasion : new directions in theory and research*. Beverly Hills, Calif. : Sage.
- 16) Blalock, H.M. & Wilken, P.H.(1979). *Intergroup Processes*. New York : Free Press.
- 17) Blood, R.O. Jr.(1967). *Love match and arranged marriage : A Tokyo-Detroit Comparison*. New York : Free Press.
- 18) Blood, R.O. & Wolfe, D.M.(1960). *Husbands and wives : the dynamics of married living*. N.Y. : Free Press.
- 19) Brown, S.(1988). *Family power and decision-making : Beyond the husband-wife dyad*.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Doctoral Dissertation.
- 20) Buric, O. & Zecevic, A.(1967). A family authority, marital satisfaction and the social network in Yugoslavia.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9, 325-336.
- 21) Burr, W.R., Ahern, L. & Knowles, E.M.(1977). An empirical test of Rodman's theory of resource in cultural contex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505-514.
- 22) Cheek, G.F.(1987). *Power and ideology in marriage : A reexamination of resource and normative theory using multiple measures of power*. University of Minnesota Doctoral Dissertation.
- 23) Cobb, S.B.(1988). *The concept of power in family therapy : toward a hegemonic analysis of discours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Doctoral Dissertation.
- 24) Connel, R.W.(1985). *Theorizing gender*. *Sociology* 19, 260-272.
- 25) Cooney, R.S., Rogler, L.H., Hurrell, R. & Ortiz, V.(1982). Decision-making in international Puerto Rica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621-631.
- 26) Cromwell, R.E., Corrales, R. & Torsillo, P.M. (1973). Normative patterns of marital decision-making power and influence in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 a partial test of resource and ideology theory.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4, 177-196.
- 27) Cromwell, R.E., Corrales, R., Torsillo, P.M. & Olson, D.H.(1975).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of power. In R.E. Cromwell & D.H. Olson(Eds.). *Power in families*. John Wiley & Sons.
- 28) Davis, S.F.(1975). *Intimacy and perceived influence : a correlational study of rated use of resource*

- types as bases of influence within heterosexual dyads of three levels of intimacy. Northwestern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I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6, 5861B.
- 29) deTurck, M.A. & Miller, G.R.(1986). The effect of husbands' and wives' social cognition on their marital adjustment, conjugal power, and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715-724.
- 30) Dunagan, D.B.(1987). Marital power in the middle years. Iowa State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31) Eichler, M.(1981). Power, dependence, love and sexual division of labour.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Quarterly* 4, 201-219.
- 32) Falbo, T.(1977). Multidimensional Scaling of Power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8), 537-547.
- 33) Falbo, T. & Peplau, L.A.(1980). Power strategies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4), 618-828.
- 34) Ferree, M.M.(1990). Beyond separate spheres : Feminism and family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4), 866-884.
- 35) Fox, G.L.(1973). Another look at the comparative resources model : assessing the balance of power in Turkish marriag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5, 718-730.
- 36) French, J.R.P. Jr. & Raven, B.H.(1957). The bases of social power. In D. Cartwright(ed.). *Studies in social power*. Ann Arbor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37) Gottman, J., Markman, H. & Notarius.(1977). The topography of marital conflict : a sequential analysis of verbal and nonverb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1-477.
- 38) Gray-Little, B. & Burks, N.(1983). Power and satisfaction in marriage : a review and critique. *Psychological Bulletin* 93(3), 513-538.
- 39) Guliver, P.H.(1979). *Disputes and Negotiations*. New York : Academic Press.
- 40) Hill, W. & Scanzoni, J.(1982). An approach for assessing marital decision-mak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927-942.
- 41) Homans, G.C.(1974). *Social behavior : it selemetary forms*.(Revised ed.), New York : Harcourt Brece Jovanovich.
- 42) Huston, T.L.(1983). Power. In H. Kelley, et al. (Eds.). *Close relationships*. New York : W.H. Freeman.
- 43) Johnson, C.L.(1975). Authority and power in Japanese-American marriage. In R.E. Cromwell & D.H. Olson (Eds.). *Power in families*. New York : Halsted Press.
- 44) Jorgensen, S.R.(1986). *Marriage and the famil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New York.
- 45) Kim, On-Jook Lee & Kyong-Dong, Kim(1977). A causal interpretation of the effect of mother's education and employment status on parental decision-making role patterns in the Korean family.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8, 117-131.
- 46) Kingsbury, N.M. & Scanzoni, J.(1989). Process power and decision outcomes among dual-career couple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20 (2), 231-246.
- 47) Kranichfeld, M.L.(1987). Rethinking family power. *Journal of Family Issues* 8(1), 42-56.
- 48) Lee, G.R. & Petersen, L.R.(1983). Conjugal power and spousal resources in patriarchal culture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14, 23-38.
- 49) Lehmann, E.W.(1969). Toward a macrosociology of powe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4, 453-465.
- 50) Madden, M.E.(1987). Perceived control and power in marriage : a study of marital decision making and task performa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3(1), 73-82.
- 51) Manz, C.C. & Gioia, D.A.(1983). The interrelationship of power and control. *Human Relations* 36, 459-476.
- 52) Markman, H.J.(1979). Application of a behavioral model of marriage in predict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couples planning marria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743-749.
- 53) Markman, H.J.(1981). Prediction of marital distress : a five year follow-up.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 760-762.
- 54) Mayberry, N.L.(1988). Authority, power and control in family systems counseling. School of Theo-

- logy at Clemont, D.Min.
- 55) McDonald, G.W.(1977). Family power : reflection and direction. *Pacific Sociological Review* 20, 617-621.
- 56) McDonald, G.W.(1980). Family power : the assessment of a procode of theory and research 1970-1979.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13.
- 57) Olson D.H., Cromwell, R.E. & Klein, D.M.(1975). Beyond family power, In R.E.Cromwell & D.H. Olson (Eds.). Power in families. New York : Halsted press.
- 58) Osmond, M.W.(1978). Reciprocity : a dynamic model and a method to study family power. *Journal of Marriage the Family* 40, 49-62.
- 59) Raven, B., Centers, R. & Rodrigues, A.(1975). The bases of conjugal power. In R.E. Cromwell & D.H. Olson(Eds.). Power in families. N.Y. : John Wiley & Sons.
- 60) Rodman, H.(1967). Marital power in France, Greece, Yugoslavia and the United States : a cross-national discussion. *Journal of Mariage and the Family* 29, 320-324.
- 61) Rodman, H.(1972). Marital power and the theory of resources in cultural context.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 50-69.
- 62) Rollins, B.C. & Bahr, S.J.(1976). A theory of power relationships i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619-628.
- 63) Safilios-Rothschild, C.(1967). A Comparison of power structure and marital satisfaction in urban Greek and French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9, 345-352.
- 64) Safilios-Rothschild, C.(1970). The study of family power structure : a review 1960-1969.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539-552.
- 65) Safilios-Rothschild, C.(1976). A macro- and micro-examination of family power and love : an exchange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 355-362.
- 66) Scanzoni, J.(1979a). Social processes and power in families. In W.R. Burr et al.(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I, N.Y : Free Press.
- 67) Scanzoni, J.(1979b). Social exchange and bahavioral interdependence. In R. Burgess & T. Huston (eds.). Social exchange in developing relationships. New York : Academic Press.
- 68) Scanzoni, J.(1982a). Sexual Bargaining : Power Politics in the American Marriage. (2nd ed.).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69) Scanzoni, J. & Fox, G.L.(1980). Sex roles, family and society : the seventies and beyon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20-33.
- 70) Scanzoni, J. & Polonko, K.(1980). A conceptual approach to explicit marital negoti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31-44.
- 71) Scanzoni, J. & Szinovacz, M.E.(1980). Family decision-making : sex roles and change over the life cycle. Beverly Hills. Calif. : Sage.
- 72) Sexton, C.S. & Perlman, D.S.(1989). Couples' career orientation, gender role orientation, and perceived equity as determinants of marital pow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933-941.
- 73) Smith, T.E.(1970). Foundations of parental influence upon adolescent : An application of social powe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5, 860-872.
- 74) Sprey, J.(1972). Family power structure : a critical com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4, 235-238.
- 75) Sprey, J.(1975). Family power and process : toward a conceptual integration. In R.E. Cromwell & D.H. Olson (Eds.). Power in families. New York : Halsted Press.
- 76) Sprey, J. & Tallman, I.(1971). SIMFAM : a technique for observational measurement and experimental study of families. In J. Aldous, T. Condon, R. Hill, M.Straus & I.Tallman(Eds.). Family problem-solving. Hinsdale, Ill : Dryden.
- 77) Sullivan, K.C.(1990). Women, power and gender : A critical analysis of feminist perspectives in anthropology. Michigan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1989. I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0(7).
- 78) Szinovacz, M.E.(1981). Relationship among marital power measures : a critical review an empirical test.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12, 151-170.
- 79) Szinovacz, M.E.(1987). Family power. In M.B. Su-

- ssman & S.K. Steinmetz(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Y. : Plenum Press.
- 80) Tedeschi, J.T.(1981). Impression management theory and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New York : Academic Press.
- 81) Turk, J.L.(1974). Power as the achievement of ends : a problematic approach in family and social group research. *Family Process* 13, 39-52.
- 82) Walster, E., Walster, G.W. & Berscheid, W.(1978). Equity : theory and research. Boston : Allyn and Bacon.
- 83) Warner, R.L., Lee, G.R. & Lee, J.(1986). Social organization, spousal resources and marital power : a cross-cultur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121-128.
- 84) Witteman, H. & Fitzpatrick, A.(1986). Compliance-gaining in marital interaction : power bases, processes, and outcomes. *Communication Monographs* 53, 130-143.
- 85) Wrong, D.H.(1979). Power : its forms, bases and uses. New York : Harper & Row.